

경험을 꼭꼭 눌러버렸던
만남을 단단히 가둬두었던
너와 나를 둘러싼 겹겹의 경계들.

그 경계를 자유로이 횡단하며
막막하기만 했던 벽들을 와르르 흔트리기 위하여,
깊숙이서부터 차오르는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하여.

나와 너의 언어를 엮어
여성주의로 새로운 일상을
그려내겠습니다.

spea**k**-out
경계를 흔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제47대 총학생회
제22대 총여학생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www.anaventura.com

spea**k**-out
경계를 흔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최정 별 · 양김 민지와 함께하는 사람들

별

꿈꾸는 사이

학내에 여성주의 정치가 없었더라면 나는 몇 십 퍼센트쯤 더 어색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나어진 유색인종 여성 배낭여행자가 되어 떠돌 때 낯선 땅에서 겁먹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도 여성주의의 힘이었다. 기대고 비밀 언덕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여성주의야.

나와 당신이 지금 이대로 강하고 아름다워서 눈물나게 고맙기에, 생을 꼬집고 깨물고 풍성하게 해보자. 하늘과 바다가 짙은 곳으로 홀로 훌쩍 떠나기도 해보고, 시끌벅적한 축제에 휩쓸려 웃고 울고 뒤엉켜 보기도 하자. 세상이 그리도 안 변할 것 같아도 내가 이리로 움직일 때 여기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껴보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성주의자가 되길 잘했다.

총여학생회 정후보 최정 별 별 (철학과 2학년)

- 2007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입학
중앙동아리 MAY 활동
2007 헤이리 판 페스티벌 자원봉사
- 2008년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이스탄불까지 배낭여행
- 2009년 21대 총여학생회 에코페미니즘 운동팀 활동
대동제 생태장터 <녹색성장이 싫어서 슈렉의 눈을 지키는 카페> 기획단
2009 여름방학 세미나 <여름방학 여성주의 남실남실 세미나> 참여
2009 여름방학 송도갯벌 생태현장활동 활동
제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기획단

몸 바꾸기

겨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 못난 부분부터 눈에 먼저 들어온다
계절마다 바뀌는 유행하는 옷들은 날씬하라고 나긋나긋하라고 온 몸을 졸라맨다
머리로 가슴으로 분명 불편하고 화날 일이 생겨도 나도 모르게
얼굴에는 습관적인 미소를 띄우며 행여나 목소리가 치솟을까 꾸욱꼭 눌러앉힌다
요러니 일상 구석구석 몸이 부대끼고 치이며 숨쉴 틈이 없더라

나는 사실 내가 좋는데 그걸 자꾸자꾸 까먹게 된다
왜냐하면 획일적인 기준들이 내 몸을 뭉뚱뚱 베어내니까
왜냐하면 웅어리진 강박관념이 내 몸에 또아리 틀고 있으니까
몸에 들러붙은 꺼림칙한 시선을 짝 몰아내고 싶은데.....

몸 바꾸기의 가능성,
내 몸이 소곤소곤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니
내 몸은 사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였어!
자, 이제 나의 몸으로 손끝으로 눈짓으로 경계를 우당탕쿵탕 뒤흔들자

나는 내가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진다
매일매일의 관계와 경험을 담아내는 몸의 이야기는 점점 더 풍성하게 차오른다



www.anaventura.com

성폭력 각본을 깨는 반성폭력 운동!

- OT, 새터 등의 학생자치활동에서 성폭력 자치규약과 간담회를 통해 반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나갔습니다.
- 학교 전반에 성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반성폭력 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동성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 비가시화된 성폭력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성폭력 각본을 깨는 담론을 만들어나갔습니다.
- 가해자중심적인 성폭력 각본에서는 말해지지 않았던 여성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하다

-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난 다양한 정체성과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제를 기획했습니다.
- 비이성애정체성에 대해 직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학내 호모포비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강의실 및 학내 커뮤니티에서 자행되는 호모포비아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학내의 성소수자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담론화했습니다.

간하지 않는 몸, 긍정하며 피워 올리다

- 몸 프로젝트 팀을 꾸려 젠더규범에 갇혀있던 몸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일상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몸바꾸기와 관련한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 다른 몸의 가능성을 실천해 온 외부 여성주의 단체와 연대했습니다.

일상의 작고 힘 있는 한 걸음, 에코페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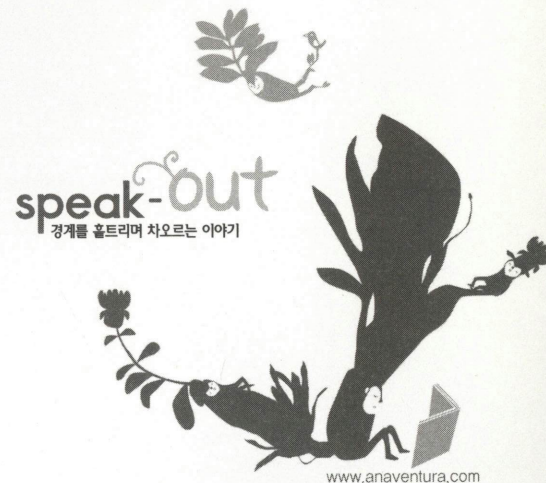
- 에코페미니즘 팀을 꾸려 생태적인 일상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갔습니다.
- 일회용품을 덜 쓰고 로컬푸드를 사용하며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대동제 생태 장터를 과/반에 제안하고, 아카라카/연고제 행사의 과도한 쓰레기 및 분리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생태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 학교 식당에 자기 컵 쓰기와 채식식단·로컬푸드 식단을 도입하고, 비생태적인 생수산업에 문제제기 하며 식수대 설치 및 관리를 추진하는 등 학교공간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여학생 교육권을 펼치다!

- 교양 필수 혹은 프레시맨 세미나에 여성학 수업 개설을 추진하고, 여학생 수첩과 매체 등을 통해 여성학 수업의 소개와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 단과대 학생회와 연계하여 여학생 휴게실 개선 사업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 학내 비상벨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밤길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하교길의 가로등 설치를 추진해나갔습니다.
- 여학생 사위실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주의 프리즘! 무지갯빛 목소리

- 여학생의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실은 여학생 수첩을 발간했습니다.
- 여성주의 매체와 총여학생회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 일상의 고민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내는 장으로서 여성주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여성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낼 수 있는 여성제를 개최했습니다.



총여학생회 부후보

양김 민지_ 나무 (간호학과 4학년)

- 200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입학
간호대 풍물패 <선우굿패> 활동
- 2007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진학
- 2008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편집위원회 <예글> 활동
- 2009년 서울 동행 프로젝트 멘토
2009 여름방학 세미나 <여름방학 여성주의 넘실넘실 세미나> 참여
제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기획단



나무

빛에 산란하는
가능성의
이파리들

‘여성’이란 타이틀이 싫었다. 내 안에 여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채로운 나를 여성이란 한 단어 안에 가두고 싶진 않았다. 나는 가부장제 속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걸, 하며 ‘여성’이라는 단어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외계는 “여자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나를 ‘여성’ 이상으로 보려하지 않았다. 좌절했고 슬펐다. 그래서 나는 외계가 원하는 그런 여성으로 위장했다. 그렇지만 ‘그런 여성’이어도 나는 여전히 불편했고 고통당했고 수없이 갈등을 빚었다. 내가 여성성을 거부하던 여성성을 활용하던 부대낌은 언제나 존재했고 그것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내가 이상하고 나의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숨었다.

그러다 여성주의를 만났다. 새로운 언어를 만났다. 그 부대낌이 언어를 찾지 못한 이유임을 알았다. 나를 외부의 평가라는 이름으로 타자화하고 배제시키는 가부장제가 문제임을,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님도 알았다. 나의 잘못이 아님을, 나를 있는 그대로 봐도 괜찮다는 것을, 나를 긍정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여태껏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차오르는 힘으로 당당히 내뱉을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온전히 긍정하는 힘, 나는 여성주의로부터 얻었다.